

박성창*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 6월 10일에 개최된 제1회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은 기초교육의 강화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비교적 높다고 인정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시급한 교육 현안임을 일깨워주었다. 특히 글쓰기 교육은 대학이 담당해야 할 기초교육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초적인 토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마지막 섹션이 ‘대학교육에서의 글쓰기’ 문제를 다룬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름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교수학습센터의 중요성이 각 대학에서 갈수록 부각되고 있고 교수학습센터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 교육과 관련된 마지막 섹션에서는 각각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섹션의 사회자로 발표와 토론을 끝까지 경청한 청중의 입장에서 평소에 글쓰기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했던 바를 적어 보기로 한다.

우선 글쓰기란 ‘쓰기’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각하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마 최근에 ‘논술’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도 사고와 표현, 논증과 문체, 또는 논(論)과 술(述)이 잘 결합된 글이 훌륭한 글쓰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글이란 생각한 만큼 씌어진다는 점에서 사고의 정직한 산물이다. 때로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

했던 것이 글을 통해서 풀려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창조적인 발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을 통해 미처 몰랐던 자아의 한 부분을 발견해내는 기쁨이야말로 글쓰기의 매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경우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유의 치밀한 노력 없이 글재주를 부려 글을 꾸미려드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글은 허식에 치우치고 이른바 ‘화장술’에 가까워진다

‘대학교육에서 글쓰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의 게리 슈 굿맨(Gary Sue Goodman) 교수의 논지도 이러한 ‘글쓰기의 수사학’에 관련되어 있다 굿맨 교수는 글쓰기란 무엇보다도 인지 발달의 과정이고 논증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표의 전제로 삼았다 굿맨 교수는, 글쓰기란 사고에서 표현에 이르는 일종의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글쓰기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흐름이 막히거나 끊긴 부분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글쓰기가, 수직적으로는 머리(사고)에서 가슴(감정)을 거쳐 손(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수평적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의 게리 슈 굿맨(Gary Sue Goodman) 교수가 ‘글쓰기 교육’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로는 어느 한 학문 분야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굳맨 교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학제간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과학에,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질 때에만 가능해질 텐데, 이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단절이 심각한 우리의 경우 매우 시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이란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글쓰기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태환 선임연구원(글쓰기교실)은 ‘한국 대학 글쓰기 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이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언어적 환경이란 언어적 오류에 관대한 언어 사용자들의 의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인가에 관련된 사회적인 합의,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번역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의 촉구, 심지어는 글쓰기 담당 교수들의 재교육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식당에 가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물은 셀프입니다’라는 문장의 오류에 관대해질 때, 대학 안에서의 올바른 글쓰기 교육이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분의 발표는 모두 글쓰기의 문제가 단순히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과정이나 언어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지정 토론자 이외에 다른 대학의 글쓰기 담당 교수님들의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제 글쓰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반대나 유보의 목소리를 표명할 수는 없다. 문제는 ‘어떻게’ 글쓰기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방법론의 측면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의견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글쓰기 교육의 문제는 앞으로 열띤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한두 가지 지적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그 자체로 목표와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목표나 기능은 중등교육에서 글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설정되어야 한다. 글쓰기의 목표가 실용문의 작성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차원 높은 고급 에세이의 작성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별로 글쓰기의 과정과 특색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도 대학 글쓰기 교육의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즉 이공계 학생들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글쓰기 훈련뿐만 아니라 이른바 ‘Technical Writing’이라고 부르는 글쓰기도 연마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글쓰기와 관련해 교수학습센터의 이른바 ‘피드백’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수학습센터는 글쓰기 교육의 개설과 유지의 측면보다는 ‘대학국어’를 비롯한 기존의 글쓰기 과목이나 글쓰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양 및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의 글쓰기를 도와주고 훈련하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글쓰기 교실이 이러한 피드백 기능을 충실하게 맡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수업에서 글쓰기에 함양 미달로 판정된 학생들의 글쓰기 향상 및 훈련을 책임지면서 교양 및 전공 수업과 병행하여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글쓰기의 피드백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길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길이 열린다”는 격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센터의 여러 기능 가운데 글쓰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더욱 강화되고 보완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